

위기의 중년, “혼자 자게 내버려 둬”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피곤하니까!”
어느 약품 광고에 나오는 문구다. 아울러 요즘 들어 급속히 퍼진 유행어라고 한다. 왜 일도 많고 공부도 안하느냐고 물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피곤하니까!”라고 대답해 버린다고 한다.

참견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어디 그렇게 간단하겠

는가. 오히려 몇 배의 피로를 몰고 의기양양 다가오는 것이 일상이다.

지칠 대로 지쳐서 퇴근한 남편이 저녁 손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그래도 묵묵 부답인 남편을 보고 있던 아내가 색조를 바꿔서 접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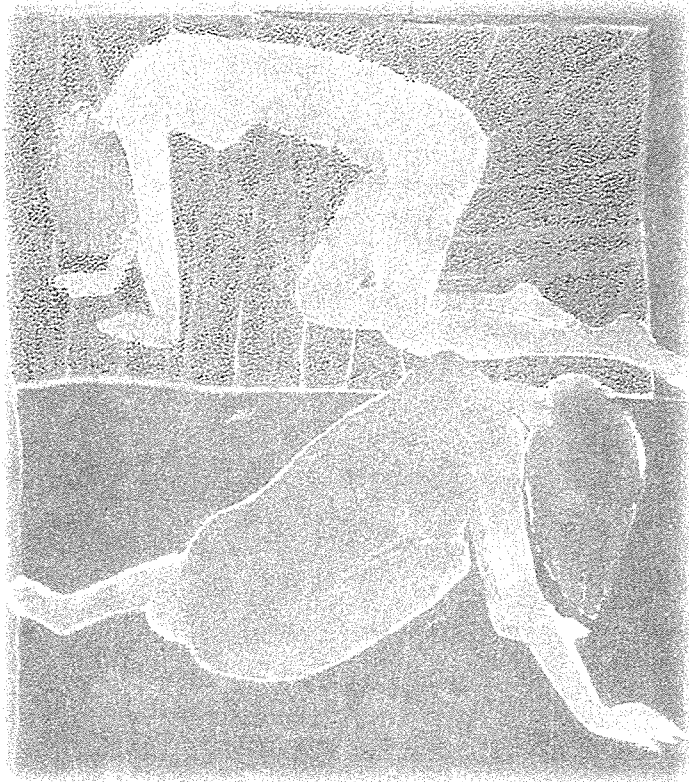
색깔만 야한가, 어색할 만큼 회한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다. 아이들은 제 방에 틀어 박혀 있고, 마감 뉴스도 끝나고, 마음만 통한다면 아내와의 그윽한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그러나 그 남편이 속으로 누누이 되뇌이는 말은 아내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피곤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당신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제발 혼자 자게 해줘...”

등 돌리고 목석처럼 누워버린 남편을 보며, 아내의 잔소리가 다시 시작된다. 그래도 나 몰라라 돌아누운 남편을 향해 기어코 마지막 직사포가 날아온다.

“여보! 당신 지금 내말 들어요?”

물론 남편들은 다 듣고



있다. 이해도 하고, 미안하게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 송구스러움도 버릇처럼 익숙해지면 잔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고 미안한 마음은 스트레스로 변해 버린다. 그리고 그중에 한 명쯤은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유흥가를 향하기도 한다.

든든한 직장에서 그 든든함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K씨는 아내의 노골적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술집 여종업원과 정을 통하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망신을 당할 만큼 말썽을 부리던 발기부전이, 그 여자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정상이 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었다고 한다.

“이 나이쯤 되면, 스트레스 없는 게 제일 기쁘잖습니까. 잔소리도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제 자신도 의기소침할 일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은 초창기의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 자신은 몰랐겠지만 스트레스 주는 아내 앞에서는 불능이고, 스트레스 없는 아가씨 앞에서는 정상 가동인 발기부전은 말 그대로 ‘심인성 임포텐스’다.

일시적으로, 자신이 발기부전이 아닌 정상임을 확인한 K씨는 처음 얼마동안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보냈다.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아내와 집안 일에 전에 없이 충실했고, 회사일도 의욕백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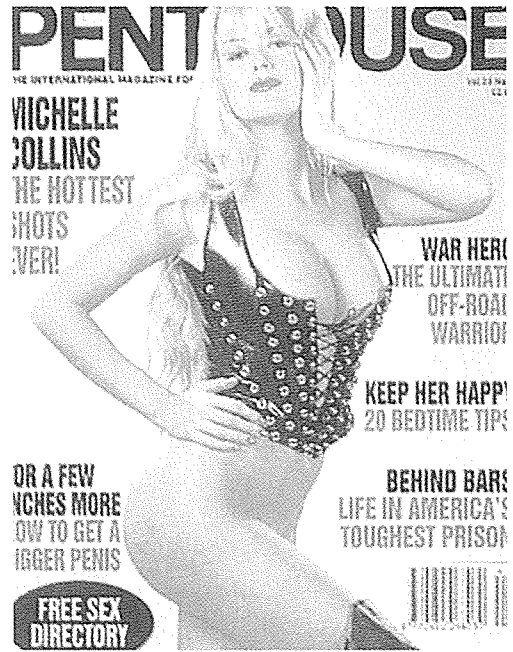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애인 앞에서 발기부전이 일어났다. K씨가 놀란 것에 비해 젊은 아가씨의 반응은 담담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처음 찾아 온 사람은 K씨의 젊은 애인이었다. 유흥가에서 만났지만 K씨에 대한 정이 깊어져서, 남편처럼 가족처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다시 두번째 만나던 날, K씨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뭔가 수심에 차 있었다. 신체적인 원인은 아닌 듯 싶고... 일단 정밀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K씨에게 정신과 L교수를 소개해 준 뒤로 얼마가 지난 후에, 예상한 결과를 듣게 됐다. 성



격은 다르지만, 다시 찾아온 심인성 임포텐스였다. 정신과 의사의 조언은 단호했다.

“절대로 수술하시면 안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아내와 가정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애인이 놓아주질 않나 봅시다. 본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일이란 생각과 중압감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어기전입니다.”

“아! 페니스가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중이군요.”

이후 정신과의와 상의해서 몇 달 동안 K씨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서둘러 처리하려고 하지 말 것, 여유롭게 정리하라고 충고하면서 본인이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줬다. 또한 부인과의 면담을 통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부인의 협조가 가장 중요함을 알려 주었다.

정신없이 일하는 남편,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아내 모두 공통의 의지는 편안한 가정을 위함이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감싸주는 부인.

섹스! 그것은 중년에 들어서 다시 태어나는 창작이다.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위기와 새내기로 변화되니까... 72